

경제

실속 재테크

재테크 패턴 바뀐다

‘단기 고수익’ 보다 ‘장기 안정형’으로

광주·전남 5월 주식거래액 2935억 줄어

4%대 정기에금·원금보장형 ELS 인기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까지 흔들리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재테크 패턴도 바뀌고 있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사람보다 예금과 적금 등 수익률은 적지만 장기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주식거래는 줄고 예금액은 늘고>=광주·전남지역의 주식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줄어든 반면 예금은행의 예금액은 늘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최근 발

표한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의 거래량은 5억1092만주로 전년대비 5062만주(9.02%) 감소했으며, 거래대금도 2조3878억원으로 한 달 만에 2935억원(10.95%)이나 줄었다. 반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예금은행의 지역별 예금을 살펴본 결과 광주지역은 3월말 기준으로 예금액이 15조8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예금액이 12조730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예금액 증가율은 전국평균(8.1%)을 웃돌

았다. 광주은행에서도 지난 5월 정기에금과 정기적금이 전년 같은 달 보다 각각 17.3%, 11.1% 증가했다. <단기 고수익 대신 장기 안정형으로>=투자원금을 지키기 위해 주식형 상품보다는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적인 연 4%대 정기에금이나 원금보장형 정기예금(ELS)이 인기다. 예금은 저금리에 물가상승률과 15.4%의 이자소득세를 감안해 실제금리는 사실상 마이너스지만 안정적인 자산 구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 우대 금리를 챙기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식으로도 예금으로도 갈 수 없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ELS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ELS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당초 기

대와 달리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이 아닌데다 최근엔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위험 관리에 대한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ELS란 기초자산(종목이나 지수)의 주가가 만기까지 일정범위를 뛰어넘거나 머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현물주식과 옵션 등을 복잡하게 엮어놓은 파생상품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이상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은 “ELS는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체크하고 환매수수료나 만기의 적정성 등도 따져봐야 한다”며 “불안한 시장상황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채권혼합형 펀드 등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이은미기자 lion@



열대야 올고 갑니다 이마트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일본 (주) 오신의 콜메트 제품 1만개를 직수입해 판매한다. 콜메트는 수분함량 85% 이상의 젤이 체온을 효율적으로 흡수, 외부로 방출해 일반 침구대비 5배 이상의 냉감 효과가 있다고 이마트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경남銀 분리매각 시급”

지방은행 노동조합 성명

광주은행 노동조합 등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지노협)는 광주·경남은행은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분리매각 민영화 추진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노협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4월 30일 우리금융지주 매

각 재추진방안 공고는 금융당국 당사자들이 매가뱅크 망상에 젖어 지방권과 지역경제 발전을 철저히 배제한 관리금융의 표상으로 졸속적인 민영화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경남은행은 공적자금 수혜 후 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뤘고 독자 수익모델을 구축해 수익과 안정성을 갖췄다”며 “공적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고 우리금융지주

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서도 지방은행은 분리매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노협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졸속적인 민영화를 계속 강행하고 지노협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 노동조합협의회는 광주, 부산, 대구, 전북, 제주, 경남 등 6개 은행 노조로 구성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 1860선 회복

유로존 위기 진정 기미...31P 상승

스페인의 은행권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로존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코스피가 11일 안도밸리를 펼쳤다. 지수는 하루 만에 31포인트 넘게 반등, 1860선 중반까지 회복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1%(31.40포인트) 오른 1867.0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1.38%(25.26포인트) 상승한 1860.90에 개장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 재선거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하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가 더 구체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덕분이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5월 수출증가율이 15.3%로 투자리트를 기록하며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것도 중국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낮추며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외국인인 1323억원의 매수우위를 사흘 연속 순매수했다. 기관도 103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에 개인은 25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234억원의 매수우위였다. 코스닥지수는 1.65%(7.60포인트) 오른 469.59로 마감했다. 아시아 증시의 주요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이 225 지수는 1.96%, 대만 가권지수는 1.72% 상승 마감했다. 중국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 2시 현재 1.15%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5원 내린 1165.9원에 장을 종료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서광주세무서, 금호고속 대표 초청 특강

서광주세무서(서장 신규석)는 지난 8일 김성산 금호고속(주)대표이사를 초청해 ‘고객행복·감동 서비스가 진정한 서비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택배산업 ‘하향길’

지난해 국내 택배산업의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성장세는 5년째 둔화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일 발간한 ‘국내의 물류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택배업의 전체 매출은 3조29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였지만 매출액 성장률은

2006년 18.6%에서 5년 연속 떨어져 9.7%를 나타냈다. 수익성도 고유가로 크게 나빠져 지난해 육상화물 차주의 월평균 순수입은 2010년 183만원에서 23.3% 감소한 140만원에 그쳤다. 책자는 무료 배포되고, 인터넷(www.korcham.net)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연합뉴스

300만원 이상 인출때 10분 지연

26일부터 CD·ATM...보이스피싱 예방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찾으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오는 26일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는 인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지연 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CD, ATM)에서 찾을 때 송금·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다.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

에 완료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1년 11~12월 1189건 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 9억5000만원, 2012년 3~4월 199건 17억4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늘었다.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월 489건에서 3월 483건, 4월 1310건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남로점(합동공인 상임료 인가): 022276-0567-9 강남점(합동공인상임료 인가): 023477-5110 종로2가점(합동공인상임료 인가): 02733-0220 송파점(상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신원리):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2001): 서울역점(서울역):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69-5110 용인점(용인내거리):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031078-4833 부천점(부천역): 032029-4400 남양주점(평내): 071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역):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051256-7200 울산 울주점(울주역):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1-0360 진주점(진주역): 055745-9870 대구 동문점(동문역):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점): 053425-7576 경북 포항점(포항역): 054044-5110 안동점(안동역): 054659-2288 광주 광주점(광주역): 062025-5110 광주점(백운광장): 0620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061705-0945 전북 전주점(전주역): 063225-5729 군산점(군산역): 063346-7188 익산점(익산역): 063839-6200 남원점(남원역): 063832-3626 대전 대전점(대전역): 042225-5110 대전점(충훈로):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25-6300 충남 천안점(천안역): 041553-2888 광주점(광주역):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043225-5110 충북 청주점(신원로): 04385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033253-5110 제주 제주점(제주시):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C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심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북문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